

폐기물의 순환

The Circulation of Wastes



글 | 姜在源

(Kang, Jae Won)
폐기물처리기술사,
한국폐기물기술(주) 대표이사,
E-mail: KOWEC@chollian.net

The waste management system has become social problem all over the world since it is too much to control the waste generated during the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Human being should minimize the dispersion of useful materials on the earth which is limited by means of recycle and reuse, and should maximize the use of solar energy which is almost infinite.

혼돈이 지나고 태초의 침묵 속에서 생명이 번성하기 시작하여 오늘날 지구상에 60억 인류가 넘쳐나고 일상 속의 삶은 탐진치로 가득하니 겁없는 인간들은 망망한 우주대해에서 외로운 혹성의 자손임을 잊고 있는 것일까.

태양에너지는 거의 무한정이라 하여도 지구상의 물질은 한정되어 있고 경제개발과 함께 물질은 끝없이 분산되어 바람도 물도 자정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으니 아름다운 자연을 경외해야할 마음은 어디로 간 것일까.

지구는 다양한 생명을 품고있는 모태이자 그 자체가 생명력을 지닌 유기체로써 오늘날 지구 환경 문제를 부분적인 처방으로 치유할 수 없는 일인지라 고비사막에서 불어오는 황사를 막으려 주변 국가들이 녹화사업을 전개하려함도 아마존의 거대한 밀림을 파괴하는 당사국의 경제개발을 선진국들이 제한하려함도 이런 연유에서이고 최근 들어 서울 시민의 주검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하는 것도 환경에 적응하려는 국토보존의 한 방법이고 보

면 환경은 이제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계층의 과소비는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우려되는데 과한 것은 차라리 부족한만 못하다고 하거늘 과도한 소비가 폐기물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환경오염원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사후처리는 이차적인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적게 낳고 적게 먹고 적게 쓰고 한다면 폐기물도 적게 나올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고 보면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그나마 지구의 자정 작용에 의해 지속 가능한 순환이 이뤄질 터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 문제는 이미 지역간 국가간 이해관계를 넘어 세계적인 이슈가 된지 오래다.

각 나라마다 경제 발전을 우선하다 보니 환경보존은 뒷전으로 밀리고 예방환경보다 비효율적인 사후환경에 급급하다 보니 환경은 점차 열악

해져서 장차 인류를 포함하여 숨쉬고 물 마시며 생존하고 있는 지구상의 종의 보존에 문제가 되고있다.

특히나 고도 산업화 사회가 될수록 폐기물의 발생량은 증가되어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상품은 물론이고 육신마저 죽어지면 폐기물이 되고 말진데 폐기물을 단지 버려지는 쓸모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차원에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순환으로 재인식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폐기물은 진정 삶의 껍질이요 삶의 자취이고 삶의 역사이자 문화가 아닐까.

인류가 남긴 위대한 문명도 인류가 남긴 잔해인 점에서 광의의 폐기물이라고 역설적으로 정의한다면 무가치하게 버려지는 폐기물도 같고 닦음에 따라 가치를 지닌 생명의 근본으로 솟아날 수 있을 것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 폐기물의 개념이 이와 같이 다를 진데 이 세상에 무가치하다고 버려질 것이 어디 있을까.

설령 폐기물을 우주선에 실려 외계로 떠나 보낸들 그 양은 티끌이요 밤하늘에 쏟아지는 유성의 잔해 이외에 지구로 유입되는 물질이 없다할 것이니 유한한 지구에서 무엇을 버리고 얻으리.

지구 환경에 붙어사는 생명체인 한 지구상의 어떠한 것도 폐기물이라 하여 버려진다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동안 환경이 경제개발의 종속적인 위치에 머물고 있었으나 이제는 환경자체를 독립적인 위치에서 평가해야될 시점에 이르렀다.

늦게나마 환경부에서 에코드림 계획을 발표하

여 과거 외국기술을 그대로 도입하던 국내환경시장 풍토를 개선하고자 국내의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함은 다행스런 일이며 입찰 참가자격에서 준공실적 제한을 당해 공사 시설용량의 3분의 1 이내로 함으로써 외국 기술 의존도를 탈피하고 국내 환경기술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바 관련 부처간 협의가 조속히 타결되어 시행되길 바라는 바이다.

결론적으로 물질로 에너지를 생산하기는 쉬우나 에너지로 물질을 창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정된 지구상의 물질의 분산속도를 낮추고 분산되는 물질을 재순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류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위하여 미래에는 통제의 기술에서 조화의 기술로 나아가야할 것이며 물질을 재순환 이용하는데는 반드시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거의 무한정이라 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지구 생존의 유일한 길일 것이다.

태양에너지는 열려있어도 지구상 물질은 닫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조력,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태양에너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지구상 물질의 분산 속도를 지구 환경 용량이 감당할 수 있는 자정작용 범위 내로 낮춤으로써 인류문명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지구 중력권의 모든 생명체가 만물의 순환 이치에 순응하여 버리고 얻음이 따로 없고 하나의 유기체에 지속적인 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구환경 보존에 범세계적인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원고 접수일 2000. 4. 27)